

민주, 윤시정연설에 “국민을 원숭이로” “양두구육” 총공세

“병사 월급 올린다면 복지 예산 삭감...특활비부터 줄여야 한다” ‘서울-경기도 통합’ 주장한 천공 영상 들고 ‘메가 서울’ 비판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조삼모사”, “맹탕 연설”, “F학점”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연설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

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 복지 예산을 1857억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 하지 않느냐.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추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별비, 검찰 특별비부터 줄여야 하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사 정원 확대는 어디로 갔느냐”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데 있어 국정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보가면서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 한 번 던져봤다가 반응 시원찮으면 없애는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

중하게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음식점시를 내는 거 아니냐”며 “같은 내용을 갖고 장난치는 거도 문제지만 빈말하는 건 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철해야 되고 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초보적인 조언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성제로, 공감제로, 비전제로, 시정연설은 맹탕 그 자체”라며 “R&D와 대폭 삭감했는지, 보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안도 해법을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역대급 세수평크에 진단도,

대책도 못 내놓고 대외경제여건은 앞으로 점점 어두운 전망 뿐인데 무역수지, 경제성장을 둔화에 따른 타개책도 없었다”며 “그저 총선용 선심성 예산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 방향도, 비전도 없는 F학점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은 맹탕이었다. 공감이 하나도 없는 시정연설”이라며 “병사 월급을 올려준다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삭감을 했다. 병사들 갖고 장난하는거냐”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시정연설에 대해 “1년 반 폭주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며 “약자, 취약층, 민생 운운하며 많은 국민을 위한 척했다. 시종일관 자화자찬 뻔뻔한 양두구육 연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경기도 통합을 주장한 무속인 천공의 영상을 공개하며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메가 서울’ 구상을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 있다. 모두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며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등장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김포-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통합 주장이 참 자연스레 연결되지 않느냐”며 “설마하니 집권여당 대표인데 흑세무민하는 자의 말 철썩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모두 우연의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길 바란다”며 “대통령과 집권여당대표가 무속인을 철썩같이 믿고 그 말에 따라 나라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여수시의회,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방안 모색 나서

박영평 위원장 “오염수 대책과 지속가능한 국제해양관광도시 발전방안 강구할 것”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제주도의 원전 오염수 대응정책을 파악하고 마이스(MICE)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벤치마킹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평) 위원 6명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먼저 제주도청을 방문해 수산물 안전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설명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응 예산 선제적 확보, 전담 조직 구성 및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을 지키고 소

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방시는 수치 조사 외 추가 조사, 수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의 정책을 펼쳤다.

이어 위원들은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로부터 규모와 운영 상황 등을 청취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최대 4,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회의장과 전시실 등을 완비했다. 또한 이윤창출보다는 홍보와 경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위원들은 벤치마킹 후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제적·선진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영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적인 원전 오염수 대응 사례를 참고해 어렵인 피해대책,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대책을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국제해양관광도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컨벤션센터와 같은 해양 목적시설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향의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이재명, ‘친명 총선거획단 논란’에 묵묵부답

이재명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좀 진지해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총선거획단 ‘친명계(친이재명계)’ 구성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총선거획단이 친명계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좀 진지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제22대 총선거획단을 구성하고 조정성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선임했다. 이외에도 여성, 청년, 원외 몫으로 원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총 13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속 설명했다.

그는 “청년 병사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무슨 특식 예산, 생일케익 예산을 깎아서 앞으로는 주고 뒤로는 뺏는 걸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미리 생각하고 또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 복지 예산을 1857억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 하지 않느냐.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연설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건전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